

2010년 11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1,995조회)

그날 마음을 정했다
その日心を決めた

중요한 건
重要なことは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私がその日心を決めたということだ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この世はそれなりに生きる価値があるところで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いい人がいて、善意と愛があつて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大丈夫'という言葉のように許しと寛大さがある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ところだと、信じ始めたのだ。

- 장영희의《견디지 않아도 괜찮아》중에서 -
- チャン・ヨンヒの<我慢しないで大丈夫>より -

* 무언가 마음을 정한 날이 있습니다.
* ある心を決める日が有ります。

용서, 사랑, 좋은 인연, 새로운 꿈, 꿈너머꿈...
許し、愛、よい縁、新しい夢、夢を超えた夢

그날 정한 마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その日決めた心が、今日の私をあるようにして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열어줍니다.
これから私が歩いていく道を開いてくれます

그 한 번의 결정이 세월이 갈수록
その1回の決定が、月日が過ぎるほど

나를 빛나게 해줍니다.
私を輝かせます。

선;의 [善意]
[명사] 善意。
<1> [명사] よい心;善良な心。
너그러움
{형용사·부 불규칙활용} 寛大だ;寛容だ;度量が大きい。

2010년 12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407조회)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空間があつて、使い道がある

서른 개의 바퀴살이
30個の輻(スポーク)が

바퀴통에 연결돼 있어도
車輪中心につながつても

비어 있어야 수레가 된다.
空間があつてこそ、車輪になる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비어 있어야
粘土を練つて器を作つても、空間があつてこそ

쓸모가 있다.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使い道がある。窓やドアをつけて、部屋を作つても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그런 고로
部屋の空間があつてこそ、使い道がある。それゆゑ

사물의 존재는 비어있음으로
事物の存在は空間によつて

쓸모가 있는 것이다.
使い道がある

- 서현의《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중에서 -
- ソ・ヒョンの〈建築、音楽のように聞いて美術のようにに見る〉より -

* 노자의 '도덕경'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 老子の'道德經'から引用した文章です

대부분의 사람이 비우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大部分の人が空いていることを恐れます

잃은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無くすことのように、逃すことのように、なくなることのように

많이 비워져 있는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たくさんあいている、器が大きい器です

많이 비워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たくさん空いている人が大きい人です

비운 만큼 많이 채울 수 있고
あけるほど、たくさん満たすことができ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たくさん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

쓸-모
[명사] 使い道;用途;取り柄。
바퀴1

[명사] 輪;車輪。

살2

<1> [명사] (戸・障子などの)棧;格子;(うちわたこ・傘などの)骨;(車輪の)輻;やぼね;スポーク。

<2> [명사] (櫛の)目;齒。...

수레

[명사] 車。

찰흙

[명사] 粘土;ねばつち。

빚다

<1> [타동사] (酒を)醸す。

<2> [타동사] (粉を捏ねて饅頭などを)こしらえる。

고-로 [故一]

[부사] ⇒ 그러므로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노자(老子)

第十一章

三十本の輻が車輪の中心に集まる。

その何もない空間から車輪のはたらきが生まれる。

粘土をこねて容器ができる。

その何もない空間から容器のはたらきが生まれる。

ドアや窓は部屋をつくるために作られる。

その何もない空間から部屋のはたらきが生まれる。

これ故に、一つ一つのものとして、これらは有益な材料となる。

何もないものとして作られることによって、それらは有用になるもののもとなる。

2010년 12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4,364조회)

절대 균형
絶対均衡

침묵은
沈黙は

심-신-정신의 절대 균형이다.
心身、精神の絶対均衡だ

자신을 지키는 자 언제나 침착하고 폭풍에도
自身を守る者は、いつも沈黙で暴風にも

흔들리지 아니 한다.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ゆれたりしない。それで得るものはなんだろうか？

자제, 참 용기, 극기, 인내, 존엄, 위덕이다.
自制、本当の勇氣、克己、忍耐、尊嚴、威徳だ

침묵은 인격의 초석이다.
沈黙は人格の礎だ

- 신명섭의《강은 거룩한 기억이 흐른다》중에서 -
- シン・ミョンソプの<川は偉大な記憶が流れる> -

* 입이 가벼우면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 口が軽ければ、人も軽くなります

마음의 무게를 잃게 돼 자제, 극기, 인내, 존엄...
心の重さをうしなって自制、克己、忍耐、尊嚴

그 모든 인격의 초석도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そのどの人格の礎も、浮き草のようにゆれて

심-신-정의 절대 균형도 어려워집니다.
心-身-精の絶対均衡も難しくなります。

절대 균형을 이룬 사람이어야
絶対均衡にいたる人でこそ

절대 믿음도 생겨납니다.
絶対信頼も生じます

폭풍 [暴風]
[명사] 暴風;嵐。

자제 [自制]
[명사·하다형 타동사] 自制;自分の感情や欲望を抑えること。

극기 [克己]
[명사·하다형 자동사] 克己;自分の欲望や邪念にうち勝つこと。

초석 [礎石]
[명사] 礎石;礎。

거,룩-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神々しい;神聖だ;尊い;立派だ;偉大である。

부평-초 [浮萍草]
[명사] ⇒개구리밥

20101202.txt

개구리-밥

[명사] 『식물』우키쿠사(우키쿠사과의多年草)。

2010년 12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10,532조회)

서른두 살
三十二歳

서른두 살.
三十二歳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持つものも無く、叶ったことも無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私を死ぬほど愛する人も無い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私が死ぬほど愛する人も無い

우울한 자유일까.
憂鬱な自由だろうか

자유로운 우울일까.
自由な憂鬱だろうか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私は、またはじ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무엇이든?
どんなことでも?

- 정이현의《달콤한 나의 도시》중에서 -
- チャン・イヒョンの〈甘い私の都市〉より -

* 그럼요.
* もちろんです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말고요.
どんなことでも、もう一度はじめることができます。

서른두 살, 그 나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三十二歳、その歳ひとつだけでも、全てのことが可能です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하고든
なんでもすることができ、だれでも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死ぬほど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너무 우울해 마시고
あまり憂鬱にしないで

힘 내세요.
元気を出して下さい

2010년 12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4,080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수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スサ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
夢見ることと行動すること

꿈꾸는 것과
夢見ること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行動することは、同じことではない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理想は私たちを夢見させるだけでなく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行動するようにたきつける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明日何をできるかについての思い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今日私たちが何ができるように

인도해야 한다.
導かなければならない

- 윌키 오의《마음의 길을 통하여》중에서 -
- ウィルキー・オーの<心の道を通じて>より -

* 꿈은 누구나 꿈니다.
* 夢は誰でも夢見ます

그러나 누구나 꿈을 키워 가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誰でも夢を育てていくことはありません

고도원님의 말씀처럼 꿈너머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ゴ・ドウオン様のお話のように、夢を超えた夢をみて、その夢をかなえるため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刻苦の努力が必要です。時間が過ぎるほど、さらに

우리의 피를 끓게 하고 가슴뛰게 하는
私たちの血をたぎらせて、心躍る

원대한 목표여야 합니다.
遠大な目標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상 [理想]
[명사] 理想。

<1> [명사] 哲学で、人間の理性と感情を十分に満足させる最も完全な状態...

20101204.txt

부:추기다

[타동사] そそのかす;けしかける ;焚きつける;煽動する。

각고 [刻苦]

[명사·하다형 자동사] 刻苦;心身を苦しめてまで努力すること。

Wilkie

2010년 12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3,447조회)

잠시 멈추어 쉼표를 찍는다
少しとまって、終止符を打つ

달려가는 눈은 놀치는 게 많다
走っていく雪は逃がすことが多い

파아란 하늘에
青い空に

구름의 굵시렁 흐름도 놀치고
雲のつぶやきの流れも逃がして

갓 깨어난 아기새의
今日覚めた赤ちゃんの

후드득 솜털 터는 몸짓도 보지 못한다
はねてるうぶげをはらうそぶりも見ることができない

사랑하는 이의 눈가에
愛する人の目じりに

맺힌 이슬 받아줄 겨를 없이
浮かんだ露受け止める余裕も無く

아파하는 벗의 마음도 거들어주지 못하고
痛がる友の心も助けることができずに

달려가는 제 발걸음이
走っていく私の歩みが

어디에 닿는지도 모른다
どこに着くかも分からない

잠시 멈추어 쉼표를 찍는다
しばらく立ち止まって終止符を打つ

- 김해영의 시 <쉼표> 중에서 -
- カン・ヘヨンの詩<終止符>より -

* 자동차가 마냥 달리기만 하면
* 車がただひたすら走れば

어느날 기름이 떨어져서 강제로 멈춰서게 됩니다.
いつの日がガソリンが無くなり強制的にとまってしまいます。

잠깐 멈추어야 기름도 넣고 고장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少しとまってこそ、ガソリンも入れて、故障無く走ることができます

꿈을 가진 사람은 잠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夢を持った人は、ちょっと止まる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잠깐 멈추어 쉼표를 찍어야 아기새의 몸짓,
ちょっととまって、終止符を打ってこそ、赤ちゃんの身振り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도 보이고
愛する人の涙も見えて

내 안의 꿈도 보입니다.
私の中の夢も見えます

침:-표 [一標]

[명사] 休止符。

<1> [명사] 文章符号のひとつ。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구시렁거리다

구시렁-거리다

[자동사] うるさく小言を並びたてる;くどくどとけちをつける;ぶつくさつぶやく。

후드득-거리다

<1> [자동사] (軽はずみな人間が)そそっかしく振る舞う;せかせかする。

<2> [자동사] (豆などを焙るとき)ばちばちはねる。

솜:-털

[명사] うぶげ;やわらかくて薄い毛;綿毛。

털:다

<1> [타동사] (ついたごみなどを)払う;はたく;振り払う;払い落とす。

<2> [타동사] (あり金全部を)使いはたす;はたく;ありったけの財産ざい...

몸-짓

[명사·하다형 자동사] 体を動かす様子;身振り。

눈-가

[명사] 目尻;目のふち。

이슬

<1> [명사] 露。

<2> [명사] 涙をたとえて言う語。

히다2

[자동사] ‘맺다’의受動:結ばれる;宿る;浮かぶ。

겨를

[명사] 暇;余暇;余裕。

강:제 [強制]

[명사·하다형 타동사] 強制;強要;無理強い;むりやりにさせること。

2010년 12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2,659조회)

안개에 갇히다
霧に閉じ込められる

안개는 점점 두꺼워졌다.
霧がだんだん厚くなった

언덕도, 바위도, 숲도... 나중에는 폐광까지
丘も、岩も、森も…後には廃坑まで

모두가 한 몸뚱어리로 희뿌옇기만 했다.
全てがひとつの体に白くぼやけた

갇힌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閉じ込められることを、私ははじめて分かった

비록 안개에 의해서이지만.
たとえ霧のためだとしても

- 정채봉의《스무 살 어머니》중에서 -
- チャン・チェボンの〈二十歳の母〉より -

* 깊은산속 웅달샘에도
* 深い山中の小さな泉にも

이따금 두꺼운 안개가 가득합니다.
たまに、厚い霧がいっぱいです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정말 안개에 갇힌 느낌입니다.
ちょっと前を見ることができず、本当に霧に閉じ込められた感じです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まるで、母の胸に抱かれたような平穩で暖かいです

그래서 더 깊숙히 안개 속으로
だからさらに深く霧の中を

걸어갑니다. 맨몸으로.
歩いていきます。裸で

갇히다
[자동사] ‘가두다’의受動:閉じこめられる;監禁される;入れられる;引きこもる。

언덕

<1> [명사] 丘;丘陵。

<2> [명사] 坂。

바위

<1> [명사] 岩。

<2> [명사] じゃんけんの石。

폐:광 [廢鑛]

[명사·하다형 자동사] 廢鉱;鉱山·炭鉱の採掘をやめること, またその鉱山。

몸뚱어리

[명사] ‘몸뚱이’의俗っぽい語。

몸뚱이

[명사] 体;体躯。

뿌:옇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부엨다’의強調語。

부:엨다

{형용사·ㅎ 불규칙 활용} 鮮明でなく白みがかっている;ぼやけている。[작은말]보얨다 [센말]부엨다

의-하다 [依一]

<1> {자동사·여 불규칙 활용} …に因る。

<2> {자동사·여 불규칙 활용} …に基づく。

비록

[부사] たとえ;もしそうであっても。

한-치

<1> [명사] 一寸。

<2> [명사] (轉じて)極めて短い距離。

포근-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温度が)暖かい;ぼかぼか暖かい;風もなく暖か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服·布団などが)ふわふわしている;ふんわりしている;ふく...

맨-몸

<1> [명사] 裸;丸裸;素裸;真っ裸。

<2> [명사] 何も持っていない体;空身;手ぶら;素手。

2010년 12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3,204조화)

“차 한 잔 하실래요?”
お茶一杯いかがですか?

원하는 남자와 연을 맺으려면
望む彼と縁を結ぼうとするなら

때론 여자에게도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時には女性も積極的な勇気が必要です

함께 공연을 본 7, 8명의 문화계 친구들과 함께
一緒に講演を見た7、8人の文化界の友人たちと共に

무대 뒤편으로 몰려가 그를 에워쌌다. 가까이서 본
舞台裏に押しかけて彼を取り囲んだ。近くで見た

그는 황홀할 만큼 젊고 잘 생겼다. 가슴이 뛰었다.
彼は恍惚するほど若く、かっこよかった。心がときめいた

옆의 친구들을 응원군 삼아 대담하게 말을
横の友達たちを応援軍として、大胆に言葉を

건넸다. “공연 잘 보았어요. 우리랑
かけた”講演大変よかったです。私たちと

차 한 잔 하러 가실래요?”
一杯お茶でもどうですか?”

- 구보타 시게코의《나의 사랑, 백남준》중에서 -
- 久保田成子の<私の愛、ペク・ナムジュン>より -

* 차 한 잔의 힘이 큼니다.
* お茶一杯の力が大きいです

차 한 잔의 인연이 운명을 바꿉니다.
お茶一杯の縁が、運命を変えます

그것도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それも勇氣ある人にだけ与えられた特権です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로, 글로, 몸으로.
愛は表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言葉で、文字で、体で、

용감히 부딪쳐야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거나
勇敢にぶつ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結果にこだわったり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傷を恐れなくて

에워-싸다
[타동사] 取り囲む;包圍する。
황홀 [恍惚·恍惚·慌惚]
[명사·하다형 형용사] 恍惚;心を奪われてうっとりするさま;エクスタシー。
대:담 [大膽]
[명사·하다형 형용사]<스럽다형 형용사> 大胆;勇敢で胆力があること。

20101208.txt

:연 [戀戀]

[명사] 恋々。

<1> [명사] <하다형 형용사>恋いこがれるさま。

2010년 12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2,053조회)

대신 절하는 것
代わりにお辞儀すること

정작 절해야 할 사람들이
いざお辞儀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が

절하지 않으므로 스님과 신부님들이
辞儀しないため、お坊さんと神父様たちが

대신 절하는 것입니다. 매 맞아야 할 사람들이
代わりに辞儀するのです。打た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が

회초리를 피하고 있으므로 대신 매를 맞는 것입니다.
鞭を避けてるため、代わりに打たれるでしょう

다리가 부러지도록 절하는 것입니다.
足が折れるほどお辞儀をするのです

바보같이 참으로 바보같이
馬鹿みたいに、本当に馬鹿みたいに

대신 절하는 것입니다.
代わりにお辞儀をするでしょう

- 도종환의《마음의 심표》중에서 -
- ト・ジュンファンの<心の終止符>より -

*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 他人の代わりに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命を捨てる人がいます。

우리는 그들을 성인(聖人)이라 부릅니다.
我々は彼らを聖人と呼びます。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大儀のために命をささげる人たちもいます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영웅이라 부릅니다.
我々は彼らを示して英雄と呼びます

대신 매 맞고 대신 절하는 이도 있습니다.
代わりに打たれ、代わりにお辞儀する人もいます

이를 일컬어 사랑이라 부릅니다.
彼らをたたえて愛と呼びます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このような人々がいるので

세상은 좋아집니다.
世界はよくなります

정,작

<1> [부사] 本當に;實際に;いざ;まさに。

<2> [부사] (名詞的に)本當;本物。

매-맞다

[자동사] (鞭などで)打たれる;殴られる。

회초리

[명사] 鞭;子供を戒めるために打ったり, 牛馬の使役に用いたりする細い木の枝。

바치다1

<1> [타동사] (神または目上の人に)あげる;捧げる;供える。

<2> [타동사] (ある対象に)心と体を捧げる;なげうつ;委...

영웅 [英雄]

[명사] 英雄;ヒーロー。

가리키다

<1> [타동사] (言葉・表情・動作などで)指す;指し示す;指さす;示す。

<2> [타동사] (記号や器具などで)方向や...

일컫다

<1>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何々と)呼ぶ;称する;号する;言う。

<2>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ほめる;たたえる。

2010년 12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1,758조회)

따지지 않는다
問い詰めない

목은 상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古い傷の影響から逃れるために

내 나름의 방법은 '따지지 않는다'이다.
私なりの方法は'問い詰めない'ことだ

우리가 만든 공동의 상처라고 생각하면,
私たちが作った共同の傷だと思えば

내가 입은 상처가 덜 원통하고 내가 입힌
私が受けた傷が悔しくて、私がこむった

상처가 덜 부끄럽다. 그렇다고 자꾸 들여다보고
傷がはずかしい。そうして、いつもしきりに眺めて

가끔씩 건드려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たまに触れるのは、百害あって一理なしだ

생채기는 잘 아물면 단단한 굳은살로 남아
擦り傷はよく治れば、硬いたこが残り

보호막의 구실을 하지만, 자꾸 건드려 벗어나면
保護膜の役目をするが、ちょっちゅう刺激して悪くすれば

암세포로 발전할 수도 있다.
がん細胞に発展したりします。

- 임혜지의《고등어를 금하노라》중에서 -
- イム・ヘジの<サバをたちなさい>より -

*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 本当に大切に愛する

사람에겐 따지지 않습니다.
人には問い詰めません

도리어 안아주고 감싸주고 지켜줍니다.
むしろ抱いて、助けて、守ってあげます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에겐 따지지 않습니다.
心から尊敬する師匠には問い詰めません

무조건 따르고 섬기고 배웁니다. 따지려 들기 위해
無条件に従って、仕えて、学びます。問い詰めて聞くために

한 걸음 다가서면 상처가 덧나 불행으로 자랍니다.
一歩近づけば、傷がぶり返して不幸が育ちます

고맙고 따뜻한 시선으로 한 걸음 물러나면
ありがたく、暖かい視線で一歩下がれば

'공동의 상처'마저도 행복의
'共同の傷'までも幸せの

디딤돌이 됩니다.
踏み石になります

따지다

<1> [타동사] (物事の是非を)問う。
<2> [타동사] 問い詰める;詰問する。

영:향 [影響]

[명사] 影響。

묵다

<1> [자동사] (他人の家または宿などに)泊まる;泊まり込む。

<2> [자동사] (年月がたって)古くなる;ひねる。

덜:

<1> [부사] ある基準より弱いさま;ある程度に及ばないさま。

<2> [부사] (主に動詞の前に付いて)より少なく;より少な...

원통 [冤痛]

<1> [명사·하다형 형용사] 非常に怨めしいこと;くやしくてたまらないこと。

<2> [명사·하다형 형용사] 嘆かわしいこと;非常に惜しいこと;残念なこと。

생채기

[명사] 搔き傷;擦り傷。

아물다

[자동사] 癒える;治る。

단단-하다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堅固だ。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かたい;堅固である。

굳은-살

[명사] (手や足などの)たこ。

구실

<1> [명사] (自分が当然やるべき)役割;本分;役目;務め。

<2> [명사] 『역사』むかし, 公共·官庁の職務...

덧-나다1

<1> [자동사] (はれものや病気などが)悪化する;ぶり返す。

<2> [자동사] (氣を)悪くする。

건드리다

<1> [타동사] (ある物に)触るか触れるかして動かす。

<2> [타동사] (言葉や行動で)人の心を傷つける;刺激する。

고등어

[명사] 『어류』サバ(サバ科の海の魚の総称)。

금:-하다 [禁—]

<1> {타동사·여 불규칙활용} 禁じる;止める。

<2> {타동사·여 불규칙활용} 耐える;抑える;断つ。

도리어

[부사] むしろ;かえって;反対に;逆に。

감:싸 주다

《관용구》過ちをかばって助けてやる;かばってやる;とり繕う;庇い立てする;ひいきする。

섬기다

[타동사] 仕える。

마저2

[조사] …もまた;…までも;…をも;…さえ;…すら。

디딤-돌

[명사] 踏み石。

20101211.txt

2010년 12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790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송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ソ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당신의 느낌, 당신의 감각
あなたの感じ、あなたの感覚

너무 많은 정보가
とてもたくさん情報が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되거나
むしろあなたに毒になったり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障害物になる場合もある。どこまでも

'타인의 시선', '타인의 취향'이기 때문이다.
'他人の視線'、'他人の趣向'だからだ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당신의 느낌과
先入観を持たず、あなたの感じと

당신의 감각을 따르기를.
あなたの感覚に従うように

- 서명숙의《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중에서 -
- ソ・ミョンソクの<かつかつと歩いていくこの道のように>より -

* 여행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 旅行先に関してどんな情報も無く

길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날 것의 시선으로
旅に出るときがあります。私なりの視線で

그 곳의 풍경과 사물을 만나고 싶을 때이지요.
その場所の風景と事物に会いたいときでしょう

내 느낌만으로 길을 뚫으면 그 길은 나에게만
私の感じだけで、道を踏めば、その道は私だけの

속살을 보여주는 '나만의 길'로 다가옵니다.
内側を見せてくれる'私だけの道'で近づいてきます

사람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人が生きることも同じです

당신의 느낌, 당신의 감각을 존중하면
あなたの感じ、あなたの感覚を尊重すれば

'당신만의 삶'이 새로 열릴 것입니다.
'あなただけの生'が新しく開かれるでしょう

취:향 [趣向]

[명사] 趣向;おもむき。

속:-살

<1> [명사] 着物で隠されている肌。

<2> [명사] (見かけではなく)実際の肉体。

다가-오다

<1> [자동사] 近寄って来る;近寄る;やってくる。

<2> [자동사] (ある時期が)迫ってくる;迫る;近づく。